

그저 왕에 불과한 왕

* 10/13(수) 열왕기하 ① 1-4장

분열왕국 1-17장

▶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1장

- 여로보암의 길 / 2년 통치
-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야
- 엘리야의 예언, 하늘의 불

▶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계승 2장

-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2:9)
- 불수레와 불말, 회오리 바람

▶ 이스라엘 왕 여호람 3장

- 여로보암의 길 / 12년 통치
- 아합이 만든 바알 우상을 철거함
- 오므리 왕조 끝

▶ 엘리사의 기적들 4장

- 빈 그릇과 감람기름
- 수넬 여인의 임신
- 엘리사와 수넬 여인의 아들
- 보리떡 이십 개와 채소

엘리사의 이야기 5장-8:15

유다 왕 여호람 8:16-24

유다 왕 아하시야,

이스라엘 왕 예후 8:25-10장

유다 여왕 아달라 11장

유다 왕 요아스 12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13:1-9

이스라엘 왕 요아스 13:10-25

유다 왕 아마샤 14:1-22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14:23-29

유다 왕 아사랴 15:1-7

이스라엘 왕 스가랴 15:8-12

이스라엘 왕 살룸 15:13-16

이스라엘 왕 므나헴 15:17-22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15:23-26

이스라엘 왕 베가 15:27-31

유다 왕 요담 15:32-38

유다 왕 아하스 16장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17장

Before 줄치며 읽기

엘리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2:9).”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엘리사의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After 묵상하기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전반전 :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일로, 왕은 우상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1:3-4).

오십부장과 군사 오십 명을 세 차례 보내,
예언자의 목숨을 노립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저 왕에 불과한 자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1:4, 17).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성서유니온 열왕기
통성경 길라잡이

● **하나님의 하프타임 : <엘리아>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야에서 여호람으로 왕위가 계승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최악이 이스라엘을 온통 뒤덮는 동안,
엘리아를 이을, 엘리사를 통한 새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아는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했습니다(왕상 18:24, 36-37).
그를 체포하러 온 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살랐습니다.
불의 선지자가 이제, ‘불’ 수레와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루아흐 / 바람, 호흡, 영)’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세나임 /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받는 몫)’로 구합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왕은 한낱 자리에 불과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왕에 불과한 자들이 아닌
엘리아에게서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의 경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끝도, 멈춤도 불가합니다.

● **하나님의 후반전 :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와 같지 않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대(先代)의 과오를 청산합니다(3:2).

바알의 주상을 성전에서 제거하였으나,
‘여로보암의 길’을 걷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도 제사하였으나,
‘다윗의 길’을 걷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손을 잡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도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와 말씀’을 먼저 구했습니다(왕상 22:4-5).
지금은 여호사밧, 여호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전쟁에 나가기로 정하고 나중에, 여호와와 선지자를 찾습니다(3:11).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사밧, 아하시야, 여호람 모두 고작 왕에 불과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무작정 가다가는, 광야 길 위에 물도 없이 서게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